



관세대응 맞춤형 바우처 사업 본격 시행

- 美 상호관세 조치에 대응해, 약 200개社 대상 맞춤형 서비스 우선 제공 -
- 현지 전문가 활용, 피해분석 및 대응, 생산거점 이전, 대체시장 발굴 등 지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와 KOTRA(사장 강경성)는, 4.2일(수)부터 美 관세조치 피해(우려) 기업 지원을 위한 '관세 대응 바우처' 참여기업 모집을 개시한다. 이번 관세 대응 바우처 사업은 국내 또는 중국·캐나다·멕시코 생산거점으로부터 미국 직수출 기업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향후 지원대상과 규모를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이번에 개시되는 관세 대응 바우처 사업은 KOTRA 해외무역관을 통해 검증된 현지 파트너社를 통한 '관세대응 패키지' 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고 있다. '관세대응 패키지'는 관세피해 대응에 특화된 ①피해분석, ②피해대응, ③생산거점 이전, ④대체시장 발굴 등 4가지 분야 500여개 신규 서비스로 구성된다. 이번 공고를 통해 선정된 기업은 현지 법무법인과 연계한 관세 피해분석 컨설팅, 부동산 전문기관을 활용한 생산거점 이전 후보지 조사 및 추천, 해외 생산 파트너(OEM) 발굴 조사, 대체시장 진출을 위한 시장현황 조사 및 바이어 발굴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관세대응 관련 국제운송 운임 지원, 특허·인증 획득 지원 등 국내 서비스도 지원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로 인한 우리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수출바우처와 다르게 해외 현지 전문가와 연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세 대응 바우처'를 마련했다.”라고 강조하며, “산업부는 앞으로도 중기부 등과 협업하여 기업 지원대상 및 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우리 수출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수출바우처 홈페이지(exportvoucher.com) 및 콜센터(02-6004-8400) 문의

담당 부서	무역정책관	책임자	과 장	정승혜 (044-203-4030)
	무역진흥과	담당자	사무관	김현동 (044-203-4033)
			주무관	김지현 (044-203-4036)

참고

관세대응 바우처 사업 개요

- (지원대상) 美 관세조치로 피해 우려가 있는 중소·중견 수출기업
 - * 국내 또는 멕/캐/중 생산거점으로부터 대미 직수출 기업 등
- (지원내용) 관세피해 대응에 특화된 '관세대응 패키지' 신규 도입
 - ①피해분석, ②피해대응, ③생산거점 이전, ④대체시장 등 4가지 분야 500여개 신규 서비스 제공
 - 신규 서비스는 기존 파트너사를 활용한 국내서비스와 함께, 무역관을 통해 역량있는 해외 현지 파트너사와 연계하는 국외서비스로 구성
 - * 기존 수출바우처 수행기관은 해외 관세, 현지세법 등에 대한 직접 컨설팅 역량 부족 → KOTRA 무역관이 해외 현지 특성에 맞는 현지 전문가 발굴(예: Deloitte, UL 등)

<관세대응 패키지 서비스 구성 예시>

연번	구분	서비스(예시)	주요내용
1	피해분석	미/캐/멕시코 관세 전문 컨설팅	해외 현지 관세전문가(K-수출파트너)와 애로기업 매칭 (관세법인, 물류회사)
2	피해대응	물류애로 종합지원	신규루트 발굴 등 물류비 절감 컨설팅 및 가격경쟁력 확보 위한 물류비 지원
3	생산거점 이전	해외거점 설립 법률, 세무지원	공장이전 등 해외거점 진출 지원 (로펌, 회계법인, 부동산, Site Selector 등)
4	대체시장	무역장벽 대응형 대체시장 발굴지원	대체시장(유럽, 글로벌사우스 등) 진출 위한 조사 컨설팅, 특허, 인증(CBAM등) 취득 지원, 전문 전시회/학회 참가 등 해외마케팅 지원

- '관세대응 패키지' 內 서비스에서 총액의 50% 이상 사용 의무화
 - * 잔액은 해외 홈페이지 개설 관련 디자인 개발, 현지활동 관련 통번역 지원 등 기존 수출바우처 14대 메뉴에 포함된 서비스 이용(개별 상황을 고려한 융통성 부여)